

# 고구려의 冠服 제도

정완진\* · 남윤자 · 조우현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

본 연구는 문헌사료와 고분벽화를 토대로 고구려 관복 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의 관복 제도를 살펴보면 의복은 襦袴制를 유지했으며 官等 高下에 따른 襦袴의 색채나 소재상의 규제는 보이지 않는다. 신분표시의 기능은 주로 관모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헌에 나타난 3세기-7세기까지의 고구려 관모 제도를 고분벽화를 참조하며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세기에는 공식적인 회합에서 人加와 主簿로 대표되는 상위 관인은 幘을 쓰고, 小加로 대표되는 하위 관인은 烏羽 折風을 썼다. 당시의 관모 제도는 관모의 종류를 달리함으로서 官人 사회 내의 상하질서를 표시하는 제도였다. 非官人은 折風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는 조우 장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우 장식의 유무로 하위 관인과 비관인이 구별되도록 하였다. 이후 7세기에 이르기까지 비관인은 줄곧 절풍을 착용하였다. 관인층의 관모로 책과 조우 절풍이 사용된 제도는 5세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상위 관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착용되던 책이 3세기 중후반-5세기 전반의 어느 시점부터 점차 하위 관인층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책이 가지는 신분 구별력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경에는 관인층 관모에서 책은 사라지고 조우 절풍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원화된 제도는 관등 內 상하서열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상위 관인의 욕구로 인해 오래가지 못하고, 6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관인층 관모는 다시 烏羽 羅冠 [蘇骨]과 조우 절풍으로 분화된다. 7세기가 되면 비관인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하위 관인의 욕구로 하위 관인의 관모 또한 절풍에서

羅冠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처럼 상하 관인의 관모가 羅冠으로 통일됨에 따라 관등 內 상하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羅冠은 다시 靑羅冠과 緋羅冠 [絳羅冠]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한편 왕의 관모는 7세기 기록에서만 확인되는데 白羅冠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왕의 관모도 관인층과 기본형태는 동일하지만 색채와 장식을 통해 구별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 문헌사료에서 확인된 고구려 관복 제도는 책·절풍·羅冠과 襦袴가 조합된 제도로 줄곧 고구려 고유 服制를 유지한 것이 큰 특징이며, 고분벽화를 통해 구체적인 형태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상당수의 평양지역 고분벽화에서 문헌상의 관복 제도와 상충되는 武冠·平上幘·介幘과 袍로 구성된 중국풍 관복이 확인되어 주목되는데 이는 평양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고구려는 평양지역에서 낙랑·대방군을 축출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이 지역의 중국계 망명인과 토착호족집단을 幕府組織에 편제하는 지배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幕府制는 중앙관료조직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므로, 막부제 아래에 편제된 중국계 망명인과 토착호족세력의 冠服은 고구려 중앙관료조직의 관복제도와 다른 체제를 지닐 가능성이 상정되었고, 평양지역 고분벽화에서 중국풍 관복제도가 확인되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광개토왕에서 장수왕에 이르는 시기에 평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 지역의 토착호족세력이나 중국계 망명인 또한 점차 고구려 중앙관료사회에 편제되어 갔을 것이므로, 평양지역의 중국풍 관복 제도는 점차 소멸되고 고구려의 관복 제도는 고유 服制로 일원화되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